

2023
October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쥬빌리 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Table of Contents

- 1** 담임목사 인사말
- 2** 회년목회 회년교회 컨퍼런스 및 회년부흥회
- 9** 선교지 소식
- 10** 교회 소식

담임목사 인사말



담임목사 김정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카자흐스탄 파블로다교회(Pavlodar Church) 봉헌 예배 교인 6분과 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인 한분 한분이 헌금한 귀한 돈으로 교회가 재건되고 예배가 살아난 현장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교인들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헌금이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년 목회를 꿈꾸며 사역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해를 선포하고 그들이 놓임 받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인들부터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옆 사람과 나누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이라고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가끔 주위도 돌아보고, 옆 사람 얼굴도 쳐다보고, 하늘도 올려다보며 주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선교와 지역사회 섬김의 사역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 희년 컨퍼런스를 통해 배운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지역에 필요한 사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하고 싶은 사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 후러싱 지역에 필요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그래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사역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니 하늘은 높아가고, 나뭇잎은 물들어 가고, 비가 오면 점점 쌀쌀해집니다. 변해가는 계절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섭리에 새삼 놀라고 감격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게 기도드립니다.

희년목회 희년교회 컨퍼런스 및 희년부흥회

지난 9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3일 동안 희년 컨퍼런스와 희년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지역과 마을을 섬기는 희년교회의 영성과 사역”이었습니다.

첫째 날 김정호 담임목사의 설교 및 개회 예배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40여 명의 목회자, 평신도들이 참여한 8개의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참가자들은 수요일 오후에 대안공동체 탐방 프로그램을 갖고 브러더호프 공동체, 맨하탄 홈리스 사역 Bowery Mission 센터, 우리 교회 주빌리 선교 센터, 펜실베니아 아미쉬 공동체, 워싱턴DC 세이버어 교회 등을 돌아 보았습니다.

[희년부흥회]

“북한 지하교회를 통해 본 한국교회 미래”(김주찬 목사, 주는평화교회, 위로재단 대표)

김주찬 목사는 2018년 주는평화교회를 개척한 뒤 위로재단을 세워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심리, 사회,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에 개입해 탈북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훈련원 모임 장소인 ‘위로카페’는 위로재단이 김포에 연 자립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김목사는 현재 교회법인, 주식회사 위로, 통일부 사단법인 ‘위로’ 등 세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로재단은 예수 공동체성 회복 및 취업, 창업, 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탈북민 심리상담 및 코칭, 다문화사회 정착 발전,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탈북민 통합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김주찬 목사는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탈북민의 현재 상황부터 소개하였습니다. 탈북 직후 연대에서 상담 과정을 공부하고 상담 코치로 일하면서 탈북민의 70%를 차지하는 20~40대들을 주로 상담했다는 김목사는 이들이 아직도 많은 트라우마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탈북민 가운데는 탈북한 지 15년이 넘은 지금도 보위부에 끌려가는 꿈을 꾸든지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강제로 북송된다든지 하는 꿈을 꾸는다고 합니다. 북에서 당했던 트라우마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문화적인 충격, 가정 문제, 직업 문제 등 북한과는 또 다른 많은 한계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의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처소에 머물 때는 매일 성경을 읽고 훈련받고 통일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초기 남한에 정착하던 탈북민들은 80%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2022년 현재 탈북민들은

10% 미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찬 목사는 “감리교회가 강조하는 사회적 성화의 목적에도 잘 맞는 사회 친화적, 사회 지향적 모델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선교적 접근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이러한 통일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을 통해 만들어질 때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이 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 (노지훈 목사, 움직이는 교회)

노지훈 목사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간증하며 스탠롤랜드 박사의 ‘지역사회 보건을 통한 전도(CHE, Community Health Evangelism)’를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지역사회 보건 활동과 전도를 통합한 것으로 이 전략은 의료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 보건요원이 되어 특정 선교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지훈 목사는 CHE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알아보고 각 지역 사회 구성인들이 육체적, 영적, 감정적, 사회적인 전 분야에서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하며 CHE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수가 늘어나게 되어 현지인 초신자들이 모여 자기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CHE 사역의 결과로 교회들이 현지인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CHE는 개발적인 면에서 3가지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1) 첫째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Do Not FOR them, but do WITH them) (2) 두 번째는 현지 자원(인적, 물적)의 개발과 활용(Local resources development)이다. (3) 세 번째는 개발의 초점은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 전인 변화)’ 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인 사역의 예로 거리 청소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교통 정리, 마을 방역, 화단 만들어 주기, 간단한 의료지식 알려주기 등을 소개하며 다양하게 많은 것을 지역에 맞추어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희년의 영성 - 화해, 치유, 섬김”(이후정 총장,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은 이사야서 61:1-3을 본문으로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희년 영성’의 예로 화해와 치유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화해는 근원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성육신 되어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화해는 회개를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희년은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며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22-26에 나오는 치유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벳새다에서 예수님이 손으로 붙드시고 만지실 때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는 주님을 의지할 때 치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영, 혼, 육에 다 병을 가지고 있고 죽을때까지 치료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희년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회복될 때에 명확한 영적인 비전과 목표도 생기는 것이며 희년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희년의 교회는 영적인 시각이 치유된 교회로서 그 시각으로 구체적인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희년은 진정한 힐링이 되는 것인데 세상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치유가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오는 것이며 희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 섬김으로 세상에 진정한 치유와 기쁨과 화해와 일치를 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정 목사는 또한 산상설교 팔복의 영성을 강조하며, 팔복에 관한 말씀이야말로 거룩한 마음과 삶을 위한 청사진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 주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아래 살아야 하고, 회개의 삶을 통해 새 사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구원의 길에서 새 사람됨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희년 목회의 새로운 비전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영적인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제발교]

“희년 목회의 시대적 요청” (유성준 목사, 한국 서번트리더십 훈련원)

유성준 목사는 이 시대 교회는 철저한 영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며 바른 기독교 공동체는 마태복음 22:34-40의 위대한 계명(The Great Commandment)과 마태복음 28:18-20의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에 헌신하는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의 내적인 여정(Inward Journey), 외적인 여정(Outward Journey), 함께하는 여정(Journey Together)의 철저한 균형을 이루는 목회 모델이 바로 서번트 목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번트 목회를 지향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7가지 특징은 ‘(1) 리더로서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도를 섬기는 자로 인식한다 (2) 공동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 (3) 항상 학습한다 (4) 먼저 성도들의 말을 경청한다 (5) 설득과 대화로 사역을 진행한다 (6)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이끈다 (7) 위임을 통해 리더십을 공유한다’ 등입니다.



유성준 목사는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대안 모델로서 세이비어교회를 소개하며 세이비어교회의 핵심 철학으로는 ‘(1)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2)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3)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4)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계선상의 사역” (장위헌 목사, 뉴잉글랜드연회 감리사)

장위헌 목사는 교회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은 현시대를 암울하게 하고 어둡게 지배하려는 영의 세력을 분별해 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것들은 문화, 체제, 구조, 세계관 등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분법적 세계관과 생각의 습관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지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분법적 세계관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나누어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옳아매고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며 이 시대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위헌 목사는 모든 사회가 양극화, 진영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은 단순히 공멸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통의 문제들을 야기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는 경계선상의 존재로 틈새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며 그리스도의 길은 탈 이분화의 길로 화해와 화합, 연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는 탈 이분화 된 공동체로 이분화로 인한 양극화와 진영화를 와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장위헌 목사는 이 시대의 교회도 탈 이분적 공동체이자 틈새 사역의 주체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며 모두 하나 되는 희년 정신을 지향하는 희년교회는 동의에서 인정으로, 전도에서 수도(영성 훈련)로, 프로그램에서 관계로, 행복/성공에서 자족/감사로, 교회에서 이웃으로, 교리에서 역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희년을 이루는 교회”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후러싱제일교회는 한어 회중 창립 50주년(2025년)을 맞이하여 교회 모든 것을 ‘희년교회’ 됨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대강령(The Great Manifesto of Jesus Ministry)인 누가복음 4:18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전통 감리교회 목회의 두 축인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년 목회는 예수님의 정신과 함께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 실재를 현실화하고, 웨슬리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답(그리스도)이고 교회가 소망이라는 분명한 신앙고백과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회복의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러싱제일교회의 사명은 (1) 현 후러싱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2) 맨하튼을 중심으로 젊은 층 속으로 들어가는 비전을 갖고 (3) 도시목회의 꿈을 꾸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원칙으로는 (1) 씨버브지역 목회 패러다임에서 도시목회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2) 선교적인 교회로서 교회가 현재 있는 지역에서도 선교적 삶을 실천하며 살고 (3) 이기적인 ‘교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협력하는 파트너 목회 추구하며 (4) 이를 위한 도구로 ‘믿음의 친구들’(Band of Brothers & Sisters), 말씀 묵상과 말씀 실천 프로그램을 온 교인이 참여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정호 목사는 ‘믿음의 친구들’은 말씀 묵상(QuietTime)과 말씀 실천(ActionTime)을 함께하는 전도와 선교의 기초 단위로써 중풍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4명의 친구를 생각해 4명이 한 모임이 되어서 우리네 중풍의 현실

이 무엇인지 나누고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증풍의 현실이 치유되면서 주변에 예수님 만나 고침 받아야 할 친구들을 찾는 것인데 그 친구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고쳐져야 할 세상 문화, 가치관, 구조 악, 환경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후러싱제일교회가 희년교회로서 실천 중인 프로그램은 뉴욕 지역사회 사역(푸드 팬트리, 블레싱 스토어, 한글학교, 문화 사역 등), 도심 청년 맨해튼 프로젝트(जू빌리 디너 처치), 믿음의 친구들(말씀 묵상, 말씀실천 소그룹 운동)등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사역 이야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돌봄의 사역” (임종한 교수,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부천 약대교회 장로)는 환경의학 전문가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암 예방 특별법’ 자문,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조사’ 위원, 국내 화학물질 및 대기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가 유공훈장과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온 임교수는 지역사회의 의료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1989년 인천의 낙후된 지역에서 의료협동조합을 세워 소외된 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1년, 의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당시 우연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친구가 진압대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다 붙잡혀 최전방으로 끌려가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좋아했던 그에게 군부대에서 읽을 거라고는 군인신문과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신문보다는 성경이 낫겠다 싶어서 읽게 됐고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회 왔던 어머니가 평소 고관절 통증이 있던 부분에 안수기도하면서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군대였지만 그곳에서 ‘앞으로 의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을 공부했고 주치의로서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수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의술을 펼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역 의원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청년의료인회와 함께 지역 의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회 모든 이들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로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그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가 사회 전반에 적절히 배분되고 사용될 때, 그 사회는 사람이 살 만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만든 조직입니다. 의료기관을 포함해 건강과 관련된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와 함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작은 공동체” (이정아 대표, 부천 선한목자교회)

이정아 대표는 부천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남편 김명현 목사와 함께 미국에서 세이비어공동체를 경험한 후 돌아와 2003년에 교회를 개척한 때부터 줄곧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믿기에 다양한 경로로 도움 요청이 오거나 오갈 곳 없는 이들이 연결될 때면 한 번도 거부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정아 대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당신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환경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정아 대표는 자신의 사역 소개로 (1) 가정과 제도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식당,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청개구리 (2)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목적으로 부천지역 학교들을 찾아가는 청개구리 총전소 (3) 부천역 ‘마루 광장’을 중심으로 거리 생활인을 위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는 흰수염 고래 (4)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무료 식당 두루두루 맘 카페 (5) 아동, 청소년을 위한 유료 식당 카페 마루 (6) 아동, 청소년을 위한 대안 가정 살롱 빌리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정아 대표는 공동체의 시작은 가난한 제자들이며 이들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늘나라’ 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가난과 연대하는 제자들이며 이들은 가난을 외면하지 않고 가난과 어울림으로써 가난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차리는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시작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제자들이며 이상적인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가난한 제자들과 가난해지려는 부자 제자들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정아 대표는 누가복음을 통해 본 공동체의 본질은 ‘(1) 원수를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한다. (2) 원수를 대접한다. 누구라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3) 공동체를 향한 길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가난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가난해지려는 행위다. (4)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5)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주는 것에서 나타난다. 주는 행위에서는 어떤 판단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주는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6)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도(배움과 전수)를 통해 연속되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스승일 뿐이다. (7)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제자도는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빼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민자 보호 교회 눈으로 본 희년 교회 & 희년 목회”(조원태 목사,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희년교회의 의미가 원상회복을 뜻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1) 분단된 조국의 원상회복 (2) 이민자 나라로서 미국의 원상회복 (3) 세대 간 갈등에서 세대 소통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조원태 목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교회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민자 보호 교회의 역사는 (1) 구약시대-

도피성 제공 (2) 로마 시대-누명을 쓴 도망자들에게 교회를 피난처로 제공 (3) 나치독일-나치에게 쫓기는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피난처를 제공 (4) 미국 노예 시대-남부에서 도망 온 노예들에게 교회가 피난처 제공 (5) 1980년대 미국-중미에서 온 난민들에게 교회가 피난처 제공한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2003년 이후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피난처 제공과 아울러 인도적인 이민법 개정 운동, 서류 미비 청소년(다카 드리머) 구제 행정명령 시행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원태 목사가 제시하는 이민자 보호 교회의 성서적 배경으로는 (1) 레위기 19:33-34 (2) 여호수아 20:1-3 (3) 히브리서 13:1-2 등입니다. 이민자 보호 교회는 (1) 좁은 의미에서 추방 위기에 처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처소를 제공하며 추방을 피하도록 돕는 센터 교회 (2) 넓은 의미에서 이민자들의 고통에 동참을 선교적 소명으로 삼고 센터교회를 돕는 후원 교회 (3) 이민 사회의 언어, 법, 생활방식,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서류 미비자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민자에게 이민법, 사회보장제도, 자녀들의 학교 생활문제, 정신건강 등을 제공하는 확대된 이민자 보호 교회의 개념인 복지교회로 나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선교지 소식 쿠바

김정호 목사님과 후러싱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쿠바 부르짖음교회(아니엘 목사)의 성전 건축 진행 상황 보고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짖음교회의 대지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지 규모는 49m x 55m(2,189㎡)로 엄청나게 큰 대지입니다. 아바나시 도시계획과를 통하여 아니엘 목사와 레안드리스 수석 부목사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쿠바는 소유주가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정부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2인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동시에 10m x 20m의 주택 공사 허가증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온 교인들이 기쁨으로 대지를 정비하고 청소 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왕의 군대교회(마이겔 목사)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왕의 군대교회는 토론토 소망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공사로 설계도와 건축 예산을 동시에 준비하였고 건축 감독과 공사 책임자도 곧 계약하고 건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쿠바가 아직 경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아 건축재료 품귀와 재료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쿠바에서 전재덕 목사 드림



교회소식 (9월 교회행사)

YG Last Summer: Beach BBQ(9월 2일)

중고등부 아이들과 여름방학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Robert Moses Beach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BBQ도 하고 해변에 가서 마지막 여름 해수욕을 함께 즐겼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Backpack Blessing United Worship

지난 9월 3일 주일, 새로운 학교 또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축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 3부 예배를 “새 학교 & 학기 축복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서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높이 든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으며 새 학교 & 새 학기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축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선생님 & VBS 중고등부 봉사자 Appreciation Day(9월 3일)

지난 8월 25일~26일에 있었던 FUMC VBS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초등부를 돌보는 봉사하였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신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때 봉사했던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제까지 각 교육부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항상 사랑을 담아 봉사하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YG Early Morning Service Before Back to School(9월 4일)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바로 전날, 중고등부는 아이들과 함께 새벽예배를 도전했습니다. 많은 아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첫걸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아침 식사도 같이 나누고, 키세나 공원에 가서 아침 운동을 같이 하는 알찬 하루를 보내며 즐겁게 학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알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YG Baking Team: Cookies for September(9월 9일)

매달 중고등부 베이킹팀에서 디저트를 만들어서 중고등부 점심시간에 나눕니다. 이번 달에는 초콜릿칩쿠키를 만들어서 중고등부의 모든 아이가 맛있게 쿠키를 즐겼습니다. 매달 아이들이 즐겁게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YG 부모님 식사 봉사 시작 (9월 17일)

그동안 펜데믹을 잘 이겨내고 다시 교회가 열리면서 부모님들의 식사 봉사가 매달 한 번씩 시작됩니다.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시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참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부모님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유초등부

Backpack Blessing (9월 3일)

개학 전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전 교인들의 축복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3부 순서 LPC(Let's Play at Church-울동, 성가대)

새 학기가 시작되어 3부 순서를 시작합니다. 울동과 찬양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게임을 통해 아이들 서로 간에 더욱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영어) 1:00 pm @소예배실
5부 2:30 pm @소예배실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 877)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 9 pm

cbsn (www.cbsnewyork.net)

- 9am / 7pm

발행인: 김정호
편집인: 문서출판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

홈페이지: www.fumc.net